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포츠의 가치성향

김성찬¹⁾ · 이창준²⁾ · 양명환³⁾

- 목 차 -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응답분포

2.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차이 검증

3. 학교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차이 검증

4.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차이 검증

IV. 논의

참고문헌

The Value Orientations of Sport as Perceived by the Youth

Kim, Seong-Chan Lee, Chang-Jun Yang, Myung-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ue orientations of sport as perceived by the youth and college student. Specifically,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whether differences on selected sport valu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age, and sport participation.

Subjects were 1561 students(830 male and 738 female), using systematic cluster sampling, from the six secondary schools and one university in Cheju.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via 10 items questionnaire.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disagree(1)-strongly agree(5), was used to measure the value orientation of sport. Sufficient internal reliability(Cronbachs Alpha=.84) was found for the items comprising this scale. Frequencies and one-way ANOV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subjects viewed the following values acquired from the sport participation to be most important: improvement of physical fitness, good citizenship, a vehicle of social development,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operation, self-discipline, cultivation of fair play. The results indicated that gender, age and level of sport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value orientation of sport. Specifically, the gender result showed that male students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3)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시간강사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ll values of sport than did female students. The age result indicated that, for the male students, junior school student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respect for authority than did other groups, while college student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atriotism, self-discipline, and leadership, and physical fitness than did junior & high school students. With respect to female students, junior school student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cultivation of competition in good faith & cooperation, respect for authority, and fair-play attitude scores than did other groups. The sport participation results revealed that, for the male students, high-sport participants express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ll sport values (social development, good citizenship,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operation, respect for authority, patriotism, social mobility, fair play, self-discipline, leadership, and physical fitness) than did low-sport participants. For the female students, high-sport participant express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ocial development,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operation, respect for authority, social mobility, fair play, self-discipline, and leadership values than did low-sport participants. Overa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sports are perceived in positive terms from the youth and college students.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전달해주는 정형화된 사회제도로서 등장하였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은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강화시키며 또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달되는 구체적인 가치들은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확산적인 하위집단의 가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포츠는 전체사회의 차별화와 총화에 기여하거나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Wankel & Berger, 1990).

스포츠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가? 스포츠에서 표현되는 가치들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질서모형에 입각하여 학교체육을 정당화하는 일반적인 논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학교체육 및 스포츠 교육의 당위성은 흔히 스포츠가 교화로서의 교육모형으로 작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의 주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품성, 가치, 태도, 사회적 기술 및 도덕성 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특정한 경기의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보다 큰 경기를 배운다는 의미이다.

스포츠에 관련된 가치를 분석하는 일 방법으로서 Edward(1973)는 신문, 잡지, 운동경기 학술지로부터 스포츠의 견해, 신념 및 원리들을 발췌하여 소위 “미국스포츠신조(dominant American sport creed)”를 만들어 내었다. 그는 미국 스포츠의 신조를 구성하는 가치를 “성격, 규율, 경쟁,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종교심, 애국심 함양”의 7가지로 들고 있다.

Spreitzer와 Snyder(1975)는 미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의 가치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표집의 90%이상의 사람들이 스포츠는 ‘자기수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치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80%는 스포츠가 ‘공명정대한 정신’(fair play)을 함양시켜주기 때문에 가치있다고 응답하였고, 약 70%는 스포츠가 ‘권위

에 대한 존경심', '훌륭한 시민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지적하였다. 스포츠에 대한 가치 인식은 성인남녀간에 유사함을 보여주었으나, Snyder와 Spreitzer(1978)는 여성들은 스포츠의 사회통제 기능(즉, 규율과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스포츠의 가치를 휴식과 일상생활의 긴장 해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Nixon(1979)은 5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의 기능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약 95%가 스포츠가 '자기수양을 도와준다'고 응답하였고, 87%는 '운동선수가 다른사람들보다 더 건강을 누린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85%는 스포츠가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시민정신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하였고, 81%는 '조직적인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리더십 자질이 함양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교실이나 기타 다른곳에서 보다는 스포츠에서 인생과 성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23%만이 찬성을 하였고, 15%정도만이 '운동선수는 다른 사람보다 신과 조국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박홍규·정홍익·임현진, 1992).

Dubois(1986)는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10세 사이의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의 가치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들은 '경기기술 향상', '공명정대하게 '경기하는 것', '즐거움 추구', '훌륭한 스포츠맨십 발휘', '체력향상',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가치성향은 경쟁을 강조하는 상황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Snyder와 Spreitzer(1989)는 지도자들의 슬로건, 스포츠 연구잡지, 신문의 스포츠 기사 및 매체의 홍보이던지 간에 스포츠를 통해서 전달되는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고행(hard work), 규율, 성격, 경쟁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이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또한 스포츠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포츠의 가치 사회화에 대한 확산된 신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참여가 바람직한 성격 또는 인성발달, 도덕성 발달 및 사회적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희박하다(McPherson, Curtis, & Loy, 1989; Wankel & Berger, 1990).

한편, 스포츠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것과 같이 규칙위반,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폭력, 도구주의, 부적절한 경쟁심, 학업 성취력 저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도출하고 있다(McPherson, 1987). 스포츠로 하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형성한다(Tutko & Bruns, 1979), 승리광의 증상, 파괴적인 프로모형,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의 논제는 스포츠 자체가 갖고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Stevenson(1975)은 스포츠 참여의 사회화 효과를 고찰한 후 현재로서는 스포츠와 체육활동 참여가 다른 방과의 활동보다 가치 사회화 효과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는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Loy, McPherson, 및 Kenyon(1978)도 스포츠 참여와 성격 변화라는 논제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한후 스포츠 참여가 성격형성, 도덕성, 선의의 경쟁심과 협동심 배양, 훌륭한 시민정신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승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스포츠 기술을 학습하는 것 까지도 종종 방해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Kleiber와 Roberts(1981)도 사회학습의 틀내에서 스포츠가 협동심과 이타주의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더욱이 경쟁적인 스포츠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이타적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남자 어린이가 여

자 어린이보다 비 이타적임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이 스포츠의 가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인 결과가 부족하고 모순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편에서는 승리와 경쟁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주의와 공명정대한 정신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들 간의 상호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것은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서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제주도의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가치 사회화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가치 인식은 성별, 학교수준 그리고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조사연구는 1995년 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제주도내 거주하는 1561명(남학생 830명, 여학생 73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비율을 보면 중학생이 657명(41.9%), 고등학생이 605명(38.6%), 대학생이 302명(19.3%)으로 집계되었다. 표집은 다단계집락표집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3개 교육청별로 각각 2개 학교를 선정하고 다시 무작위로 특정 학년과 학급을 선택하여 표집하였고, 대학생은 3개 대학중 1개교를 선정하여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2. 측정도구

스포츠의 가치는 Spreitzer와 Snyder(1975)의 스포츠 가치성향 질문지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반대(1)에서 전적으로 찬성(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0문항을 합성한 전체가치 점수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항목들의 합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항목들의 합과 개별항목간의 상관계수와 신뢰도 값을 산출하였다. 모든 항목의 합과 개별항목간의 상관계수가 .81-.84로 나타남으로써 문항 동질성(구성타당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도 추정치인 Cronbach's Alpha의 값이 .84이고, Turkey 통계량이 1.05로 나타남으로서 개별 측정값을 더하여 합성측정치를 만드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도구의 재검사 신뢰도를 구한 결과 $r=.93$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및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스포츠 참여 정도의 측정은 직접 참가 빈도를 이용하였다. '매일', '일주일에 4-5일', '1주일에 2-3일', '1주일에 하루정도', '한달에 2-3일 정도', '한달에 한번정도', '거의 하지 않는다'로 빈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매일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참여하는 사람들을 스포츠 참여 '상'집단으로 분류하고 일주일에 하루정도 한달에 2-3일 정도 참여하는 사람들을 스포츠 참여 '중'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한달에 한번정도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스포츠 참여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수준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조사는 지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무응답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하는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 1561명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별 입력하여 분석목적에 따라서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응답 분포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응답 분포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가 표-1이다. 표-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녀 모두 거의 90%가량의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75%가 스포츠가 건전한 시민을 양성시켜주는 가치있는 활동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남학생의 약 80%와 여학생의 71%가 스포츠는 우리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78%의 남학생과 약 70%의 여학생이 스포츠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치있다고 응답하였다.

<표-1>. 성별에 따른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응답분포

종속변인	남 자(n=830)			여 자(n=738)		
	반대	중립	찬성	반대	중립	찬성
사회발전	38(4.6%)	138(16.6%)	653(78.7%)	17(2.3%)	199(27.0%)	522(70.7%)
건전한 시민양성	27(3.3%)	139(16.7%)	664(80.0%)	20(2.7%)	168(22.8%)	550(74.5%)
선의경쟁과 협동	34(4.1%)	153(18.4%)	643(77.5%)	27(3.7%)	203(27.5%)	508(68.8%)
권위에 대한 존경	137(16.5%)	307(37.0%)	386(46.5%)	143(19.4%)	386(52.3%)	209(28.3%)
애국심	88(10.6%)	263(31.7%)	479(57.7%)	76(10.3%)	274(37.2%)	387(52.5%)
사회적 이동	217(26.1%)	331(39.9%)	280(33.7%)	240(32.6%)	325(44.1%)	172(23.3%)
공명정대한 태도	73(8.8%)	237(28.6%)	520(62.7%)	74(10.0%)	270(36.6%)	394(53.4%)
자기수양	48(5.8%)	165(19.9%)	617(74.3%)	43(5.8%)	235(31.8%)	459(62.2%)
리더십 배양	97(11.7%)	287(34.6%)	446(53.7%)	93(12.6%)	322(43.6%)	323(43.8%)
건강과 체력향상	23(2.8%)	59(7.1%)	748(90.1%)	14(1.9%)	72(9.8%)	651(88.2%)

* 반대: 전적으로 반대와 반대하는 편을 더한 사례수, 중립:보통, 찬성:전적으로 동의와 동의하는 편을 더한 사례수.

63%의 남학생과 53%의 여학생이 스포츠는 공명정대한 태도를 길러준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으며, 남녀학생의 50% 정도가 스포츠는 애국심과 리더십 자질을 개발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가 젊은이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이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남(34%), 여(23%) 학생 모두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스포츠는 젊은이에게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 대해서도 남(47%),여(28%) 학생

모두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스포츠의 가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차를 검증한 결과가 표-2이다.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10개의 모든 개별 가치들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스포츠 가치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중요도를 보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건강과 체력 향상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전한 시민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 및 자기수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인 경우에도 스포츠의 기능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건강과 체력요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건전한 시민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 및 자기수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포츠 가치 중요성의 평균 크기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집단내에서의 중요도 서열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지각수준이 성별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이하의 분석에서는 성별 변인을 분리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표-2>.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인	성 별		DF	F	P
	남자(n=830)	여자(n=738)			
사회발전	4.11(.92)*	3.94(.83)	1, 1565	16.10	.000
건전한 시민양성	4.17(.86)	4.00(.80)	1, 1566	15.30	.000
선의경쟁과 협동	4.09(.89)	3.90(.83)	1, 1566	18.25	.000
권위에 대한 존경	3.44(1.05)	3.16(.91)	1, 1566	33.21	.000
애국심	3.73(1.05)	3.59(.98)	1, 1565	7.09	.007
사회적 이동	3.15(1.13)	2.90(1.02)	1, 1563	21.44	.000
공명정대한 태도	3.81(1.02)	3.61(.95)	1, 1566	15.74	.000
자기수양	4.02(.92)	3.75(.87)	1, 1565	33.51	.000
리더십 배양	3.57(1.08)	3.40(.91)	1, 1566	11.84	.000
건강과 체력향상	4.58(.80)	4.42(.76)	1, 1565	16.56	.000
전체가치	3.81(.62)	3.66(.55)	1, 1559	44.77	.000

* 평균(표준편차)-이하 동일함.

3. 학교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차이 검증

남학생의 학교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차를 검증한 결과가 표-3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위에 대한 존경, 애국심, 자기수양, 리더십 배양, 건강과 체력 향상 변인에서 학교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é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권위에 대한 존경의 가치는 연령(학교수준)이 낮을 수록 높게 평가하였으며, 애국심, 자기수양, 리더십 배양의 가치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건강과 체력의 향상에 미치는 스포츠의 가치도 중학생보다 대학생들이 더 높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포츠의 가치성향(김성찬 · 이창준 · 양명환)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는 스포츠의 가치는 건강과 체력 향상 항목이었으며, 건전한 시민양성, 선의의 경쟁과협동, 사회발전 및 자기수양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도 건강과 체력, 건전한 시민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 그리고 자기수양 순으로 지각하였으며, 대학생들은 건강과 체력, 사회발전, 자기수양, 건전한 시민양성, 선의의 경쟁과 협동 및 애국심, 리더십 배양 순으로 나타났다.

<표-3>. 남학생의 학교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인	학교수준			DF	F	P	Scheffé Test
	중(n=375)	고(n=302)	대(n=151)				
사회발전	4.08(.94)	4.11(.94)	4.21(.81)	2, 824	.97	.381	
건전한 시민양성	4.18(.89)	4.17(.83)	4.14(.82)	2, 825	.11	.891	
선의경쟁과 협동	4.09(.95)	4.09(.85)	4.05(.85)	2, 825	.13	.882	
권위에 대한 존경	3.65(1.04)	3.37(1.09)	3.08(.88)	2, 825	17.69	.000	중>고>대
애국심	3.67(1.10)	3.68(1.03)	3.98(.92)	2, 825	5.33	.005	중=고<대
사회적 이동	3.23(1.17)	3.06(1.15)	3.13(.97)	2, 825	1.94	.144	
공명정대한 태도	3.85(1.07)	3.80(1.04)	3.74(.91)	2, 825	.63	.533	
자기수양	3.96(.97)	4.00(.94)	4.20(.74)	2, 825	3.65	.026	중=고<대
리더십 배양	3.46(1.07)	3.51(.98)	3.98(.77)	2, 825	16.02	.000	중=고<대
건강과 체력향상	4.47(.94)	4.62(.70)	4.77(.54)	2, 825	8.72	.000	중<고=대
전체가치	3.86(.70)	3.84(.60)	3.93(.45)	2, 825	1.00	.368	

표-4는 여학생들의 학교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식도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4에서 보는 바와같이 선의의 경쟁과 협동, 권위에 대한 존경, 애국심,

<표-4>. 여학생의 학교수준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인	학교수준			DF	F	P	Scheffé Test
	중(n=282)	고(n=303)	대(n=151)				
사회발전	3.96(.89)	3.92(.81)	3.93(.75)	2, 733	.14	.865	
건전한 시민양성	4.02(.85)	3.97(.83)	4.05(.65)	2, 733	.57	.566	
선의경쟁과 협동	4.00(.83)	3.86(.86)	3.79(.74)	2, 733	3.69	.025	중>고=대
권위에 대한 존경	3.36(.94)	3.13(.84)	2.83(.90)	2, 733	18.13	.000	중>고>대
애국심	3.38(1.01)	3.58(.96)	4.02(.82)	2, 732	22.20	.000	중<고<대
사회적 이동	2.94(1.03)	2.86(1.00)	2.89(1.02)	2, 733	.48	.617	
공명정대한 태도	3.79(1.00)	3.56(.96)	3.39(.77)	2, 733	9.49	.000	중>고=대
자기수양	3.75(.98)	3.70(.82)	3.87(.75)	2, 732	2.03	.132	
리더십 배양	3.35(.96)	3.34(.93)	3.63(.73)	2, 733	5.96	.002	중=고<대
건강과 체력향상	4.44(.81)	4.33(.78)	4.56(.57)	2, 732	4.70	.009	중=고<대
전체가치	3.70(.62)	3.63(.53)	3.70(.43)	2, 729	1.54	.215	

공명정대한 태도, 리더십 배양 그리고 건강과 체력 향상에 있어 학교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의 방식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가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을 길러준다, 공명정대한 태도를 증진시킨다는 가치에 대해서는 여중학생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 준다는 가치에 대해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리더십 배양과 건강과 체력 향상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수준별 집단내에서의 스포츠 가치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보면, 중학생은 건강과 체력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전한 시민양성, 선의의 경쟁과 협동, 사회발전, 공명정대한 태도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고등학생은 건강과 체력, 건전한 시민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 자기수양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건강과 체력, 건전한 시민양성, 애국심,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녀 학생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포츠가 애국심과 리더십 개발, 그리고 건강과 체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권위에 대한 존경과 공명정대한 태도의 가치는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학교수준 내에서의 스포츠 가치의 평가 유형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스포츠의 참여 정도는 직접적인 스포츠 참여빈도를 기준으로 주당 3일이상 참여하는 학생을 '상'집단으로, 주당 1일과 월별 2-3회정도 참여하는 학생을 '중'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한달에 1번이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하'집단으로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인 경우 스포츠의 참여 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차이를 검증한 분산분석의 결과가 표-5이다. 표-5에서 보면, 11개의 모든 스포츠의 가치들이 스포츠 참여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중간 정도나 낮은 집단의 학생들보다 건강과 체력 향상 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스포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 자기수양, 리더십 배양, 전체가치 변인에서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평균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집단내에서의 중요도 서열은 3집단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건강과 체력, 건전한 시민 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배양, 자기수양, 공명정대한 태도 합양순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표-6은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를 검증한 분산분석의 결과이다. 표-6에서 보면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 권위에 대한 존경심, 사회적 이동, 공명정대한 태도, 자기수양, 리더십 배양과 전체 합성가치에서 참여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중간 정도나 낮은 집단보다 권위에 대한 존경, 선의의 경쟁과 협동, 사회적 이동, 공명정대한 태도, 자기수양, 리더십 배양, 전체 합성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포츠의 가치성향(김성찬 · 이창준 · 양명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참여가 높은 여학생들이 중간정도나 낮은 학생들보다 스포츠가 젊은이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이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5>. 남학생의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인	스포츠 참여정도			DF	F	P	Scheffe' Test
	상(n=254)	중(n=433)	하(n=136)				
사회발전	4.28(.89)	4.10(.86)	3.83(1.08)	2, 819	11.07	.000	상>중>하
건전한 시민양성	4.32(.79)	4.19(.80)	3.79(1.01)	2, 820	18.48	.000	상=중>하
선의경쟁과 협동	4.28(.81)	4.08(.83)	3.73(1.07)	2, 820	17.52	.000	상>중>하
권위에 대한 존경	3.69(1.01)	3.34(1.03)	3.29(1.14)	2, 820	10.72	.000	상>중=하
애국심	3.93(1.00)	3.68(1.03)	3.49(1.15)	2, 820	8.77	.000	상>중=하
사회적 이동	3.44(1.14)	3.06(1.06)	2.89(1.20)	2, 818	13.70	.000	상>중=하
공명정대한 태도	4.11(.93)	3.72(1.02)	3.54(1.09)	2, 820	17.87	.000	상>중=하
자기수양	4.17(.85)	4.03(.89)	3.68(1.07)	2, 820	12.88	.000	상>중>하
리더십 배양	3.83(.95)	3.52(.96)	3.21(1.12)	2, 820	17.84	.000	상>중>하
건강과 체력향상	4.63(.81)	4.61(.71)	4.36(1.01)	2, 820	5.73	.003	상=중>하
전체가치	4.07(.57)	3.84(.56)	3.58(.77)	2, 817	30.32	.000	상>중>하

<표-6>.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의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인	스포츠 참여정도			DF	F	P	Scheffe' Test
	상(n=101)	중(n=228)	하(n=403)				
사회발전	4.05(.79)	4.06(.78)	3.84(.84)	2, 729	6.26	.002	상=중>하
건전한 시민양성	4.05(.89)	4.02(.76)	3.98(.81)	2, 729	.39	.671	
선의경쟁과 협동	4.11(.82)	3.96(.79)	3.80(.84)	2, 729	6.71	.001	상=중>하
권위에 대한 존경	3.51(.90)	3.11(.87)	3.09(.91)	2, 729	9.12	.000	상>중=하
애국심	3.62(1.00)	3.66(.98)	3.54(.97)	2, 728	1.14	.321	
사회적 이동	3.18(1.03)	2.84(.99)	2.86(1.02)	2, 729	4.59	.015	상>중=하
공명정대한 태도	3.87(.88)	3.66(.88)	3.52(.99)	2, 729	6.20	.002	상>중=하
자기수양	3.92(.80)	3.84(.90)	3.66(.87)	2, 728	5.30	.005	상=중>하
리더십 배양	3.68(.86)	3.43(.90)	3.31(.91)	2, 729	7.13	.000	상>중=하
건강과 체력향상	4.38(.83)	4.51(.69)	4.38(.77)	2, 728	2.57	.077	
전체가치	3.84(.61)	3.71(.50)	3.60(.55)	2, 725	8.95	.000	상=중>하

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스포츠 가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과 같이 평균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집단내에서의 중요도 서열은 3집단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건강과 체력, 건전한 시민 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배양, 자기수양, 공명정대한 태도 함양순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IV. 논 의

다원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가치를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형화된 사회제도인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체력, 건전한 시민,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기존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 규칙준수 등의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주요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별, 학교수준(연령)별,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분포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 거의 90%가량의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약 80%의 학생들이 스포츠가 건전한 시민을 양성시켜주는 가치있는 활동이라고 인식하였고, 남학생의 약 80%와 여학생의 71%가 스포츠는 우리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78%의 남학생과 약 70%의 여학생이 스포츠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치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준다는 점과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사회활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Spreitzer와 Snyder(197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양(남자 90%, 여자 88%)이 가장 가치있는 스포츠 기능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중요도서열을 5번째(남학생 74%, 여학생 62%)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권위에 대한 존경심도 Spreitzer와 Snyder(1975)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70%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47%, 여학생 28%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가 공명정대한 태도를 증진시켜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80%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63%, 여학생 53%정도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가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음으로 가치있는 사회활동(남자 58%; 여자 53%)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남자 34%; 여자 49%)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의 인지도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스포츠의 가치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성역할 이론(sex-role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Melnick, Vanfossen, & Sabo(1988)는 전통적으로 스포츠, 기계, 의학 등은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영역이 여성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스포츠는 남성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경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성(femininity)과 배치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못한 역할 갈등을 초래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에 의하여 남자들보다 스포츠에 대한 참여 빈도가 낮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나 가치 또한 낮게 평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수준에 따라서 스포츠 가치의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스포츠가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공명정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데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애국심, 자기수양과 리더십 배양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초에는 스포츠의 규율과 관련된 본질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스포츠를 통한 자기실현이나 개인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참여 수준에 따라서 스포츠의 가치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중간 정도나 낮은 학생들보다 스포츠의 모든 가치들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효과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활동중에서 스포츠 관련 활동들은 참여를 강조하는 외부적인 강제력이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학생인 경우 여가시간의 증대와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소질개발, 리더십개발, 자기수양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학생 모두 건강과 체력 향상을 스포츠의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였고, 건전한 시민양성,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배양 및 자기수양 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포츠가 건강과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스포츠·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제일 중요한 동기이다. 그러나 스포츠 참가가 수직적 사회 이동의 통로가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국민정신 함양과 권위에 대한 존경심도 스포츠를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부적절한 경쟁심, 실적주의 및 업적주의(적자생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비인간적이고 병리적인 가치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의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가치 학습이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전문화된 경쟁 스포츠에서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출세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권위주의적 훈련에 쉽게 동조하지도 않으며 철저한 영리적 접근방식을 갖게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포츠가 국민정신, 단체정신(team spirit),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고양시킨다는 데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스포츠가 젊은이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낮은 것은 스포츠 기량을 통해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음으로써 일부의 선수가 수직적인 사회적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포츠에서의 탁월성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이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가 젊은이들에게 지배적인 가치를 주입하는 사회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점과 스포츠 하위문화를 통한 가치의 전파는 여러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스포츠가 바람직한 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함양하는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나 제한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얻어진 횡단적·기술적 자료로서의 한계점이 있으며, 좀 더 적절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스포츠의 가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홍규·정홍익·임현진(1992). 「스포츠 사회학」. 서울:나남출판사. pp.183-184.
Dubois, P. E.(1986).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port on the value orientations of young athlet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3, 29-42.

- Edwards, H.(1973). *Sociology of Sport*. New York: Irwin-Dorsey.
- Kleiber, D. A., & Rorberts G. C.(1981). The effects of sport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 114-122.
- Loy, J. W., McPherson, B. D., & Kenyon, G. S.(1978). *Sport and Social Systems*. Reading, MA : Addison-Wesley.
- McPherson, B. D.(1987). Sport in the educational milieu : Unanswered questions and untested assumptions. In A. Yiannakis, T. D., McIntyre, M. J., Melnick, & D. P., Hart(3rd eds.), *Sport Sociology : Contemporary Themes*(pp. 132-133). Dubuque Iowa :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McPherson, B. D., Curtis, J., & Loy, J.(1989).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 Melnick, M. J., Vanfossen, B. E., & Sabo, D. F.(1988). Developmental effects of athletic participation among high school girls. *Sociology of Sport Journal*, 5, 22-36.
- Nixon, H.(1980). Orientation toward sports particip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Behavior*, 3, 29-45.
- Snyder, E. E. & Spreitzer, E.(1978). *Social aspects of spor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Snyder, E. E., & Spreitzer, E.(1989). *Social aspects of sport*. Thi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Spreitzer, E., & Snyder, E. E.(1975).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port as perceived by the general popul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10, 35-42.
- Stevenson, C.(1975). Socialization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port: A critical review of the research. *Research Quarterly*, 46, 287-301.
- Tutko, T. & Bruns, W.(1979). Sport don't build character-they build characters. In D. S. Eitzen(ed.), *Sport in Contemporary Society*(pp. 232-237), New York : St. Martins.
- Wankel, L. M., & Berger, B. G.(1990).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benefits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67-182.